# 항해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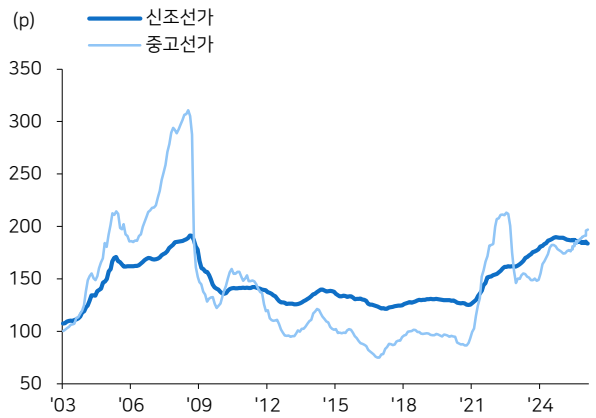
meritz 메리츠증권

2026. 2. 11 (수)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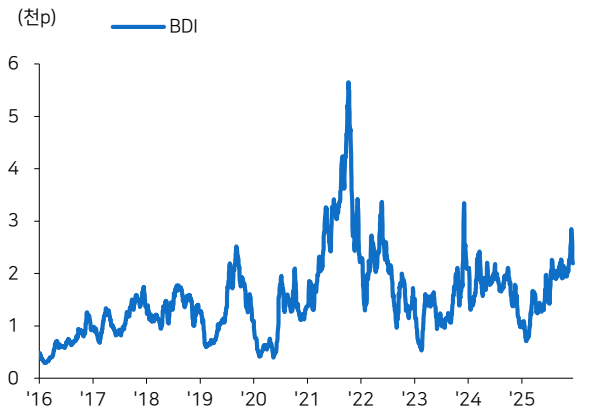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3.7p (-0.6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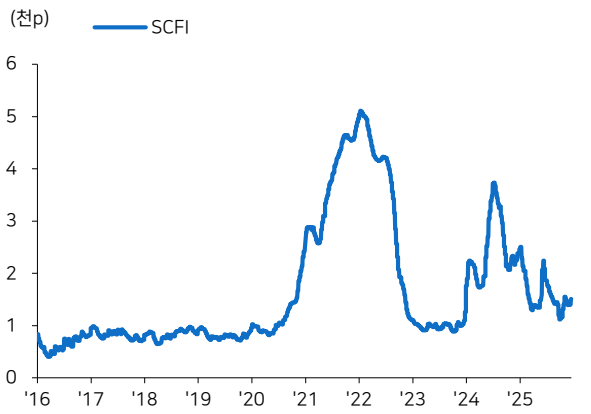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481.0달러 (-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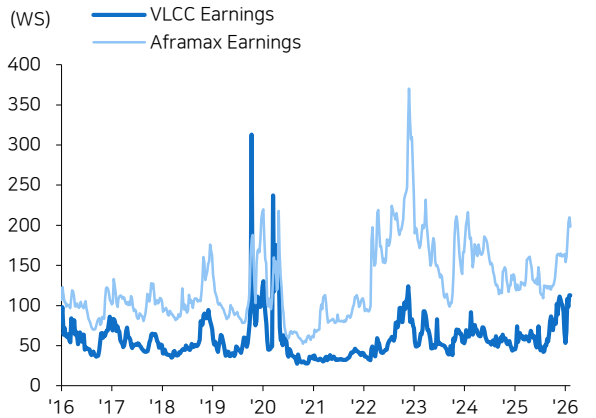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895.0p (-28.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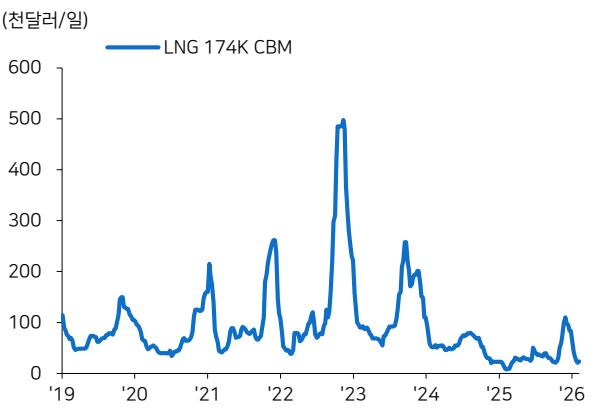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266.6p (-50.2p WoW)




**VLCC Spot Rate** 112.6WS (-0.1p WoW)




**LNG Spot 운임** 23.8천달러 (+2.8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QatarEnergy mapping out 'Phase 3' of huge LNG carrier shipbuilding project (TradeWinds)** https://buly.kr/6iid0P9

LNG 2026에 참석한 일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QatarEnergy가 LNG 운반선 대규모 신조 프로젝트의 3단계(Phase 3) 추진을 검토 중이나, 공식 발주 절차는 2027년 이후로 예상된다고 보도됨. 필요 선복 규모에 대해서는 다수가 70~80척을 거론했으나, 일부는 30척~100척 수준으로 엇갈렸다고 알려짐. 필요 선복 규모는 카타르의 LNG 판매량에 달려 있는 한편, 노후 · 저효율 LNG선 20척 이상을 정리하려는 선대 재편 구상도 병행되고 있다고 전해짐. 추가 물량 수주에 있어서는 중국 조선소가 한국 조선소 대비 척당 약 2,000만~3,000만 달러 낮은 가격 경쟁력으로 유리하며, 카타르 LNG의 중국 판매 여부 역시 중요한 변수라고 보도됨.

**Samsung Heavy cancels suezmax tanker delivery after owner fails to pay final instalment (TradeWinds)** https://buly.kr/A471q7v

삼성중공업이 선주의 최종 잔금 미지급으로 15만8,000dwt급 수에즈막스 탱커 1척의 인도를 취소했으며, 이에 자매선 1척의 인도 일정도 불확실해졌다고 보도됨. 해당 선박들은 미국 제재 대상인 두바이 Teodor Shipping과 간접적으로 연계된 법인들이 발주한 건으로 해운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됐으며, 제재 이후 선주의 지급 불이행이 발생했다고 알려짐. 삼성중공업은 이미 수령한 선수금과 제3자 매각을 통해 건조 원가를 회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계약 조정에 따른 재무적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으로 판단한다고 전해짐.

**국방부,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제정 추진 (SBS Biz)** https://buly.kr/GE9XxH4

국방부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군사용 원자력 관리 체계를 담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됨. 현행 원자력 관련 법령은 민수용 중심이어서 핵잠에 필요한 안전규제 · 보안 · 방사성 물질 관리, 연료 조달 및 IAEA 대응, 지역 수용성 확보 등을 포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알려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장기 예산 투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범정부 핵잠 TF 상설화와 대미 협상 · 산업 기반 구축을 포함한 사업 추진 체계를 일관되게 유지할 방침이라고 전해짐.

**외교부 "美, 핵잠·원자력·조선 다룰 범정부대표단 구성" (연합뉴스)** https://buly.kr/FsK2DPO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 논의를 위해 미국이 이르면 2월 말~3월 초 범정부 대표단을 한국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보도됨. 미국 대표단에는 NSC · 국무부 · 에너지부 · 국방부 등이 포함돼 핵추진 잠수함, 원자력 협력, 조선 협력 등 안보 전반을 포괄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짐.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방한이 상견례가 아닌 실질 협의가 될 것이라며, 한미 간 통상 · 관세 현안의 진전 여부가 안보 협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해짐.

**한화오션, 잠수함 수주전 '초호화 로비사단' 구축…전 장군·차관 영입 (EBN 산업경제)** https://buly.kr/4QomFFk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CPSP) 수주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한화오션은 지난해 하반기 로비스트 3명을 선임한 데 이어 올해 1월 3명을 추가 고용하며 총 6명 규모의 로비 조직을 구축했다고 보도됨. 올해 1월 한화오션 로비스트로 등록된 데이브 헤더웰은 캐나다 조달국 해양건설 부문 총괄을 역임했으며, 함께 영입된 노먼 졸린은 캐나다 해군 몬트리올함 함장까지 지낸 해군 고위직 출신 인사이고, 피터 스튜더는 캐나다 국방부 산하 물자보급청 계약 총괄을 역임했다고 알려짐. 한편 TKMS의 로비스트는 절반가량이 순수 로비스트 경력 중심 인물이라 네트워크 격차 보완을 위해 NATO 회원국의 위치를 활용하고 있다고 전해짐.

**Dozens more tankers going dark as EU eyes Russian maritime services ban (TradeWinds)** https://buly.kr/A471qOa

EU가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를 폐기하고 해상 서비스 전면 금지를 추진하면서, 규제를 준수하던 러시아 탱커 일부가 다크 플리트로 이동할 가능성이 보도됨. 해당 조치 시행 시 러시아가 1월 수준 수출을 유지하려면 수에즈막스 17척, 아프라막스/LR2 22척이 추가로 필요하며, 서부 러시아 원유 선적에서 선복 부족이 가장 심각해질 전망으로 알려짐. 전면 금지는 서방 해운 · 보험 서비스 차단으로 다크 플리트 확산을 가속화할 위험이 있으며, 영국까지 동참할 경우 국제 P&I 클럽 기반 운송이 사실상 차단돼 러시아 원유 · 정제유 수출 구조에 중대한 충격을 줄 가능성이 전해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